

# 나눔터

##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이렇게 생각한다 성적 야만사회와 자구행위 .....	3
여기는 상담실 야간상담의 현황과 밤을 지키는 사람들 .....	5
몸 이야기 누가 몸의 해방을 말하는가? .....	7
조사와 연구 성폭력 가해자 치료, 효과가 있는가? .....	8
성문화 읽기 부조리한, 너무나 부조리한 .....	10
길을 따라서 사회성지수와 살아남기 .....	11
특집 생명력 있는 자원활동을 위하여 .....	12
개소 6주년 기획 연구소 개소를 준비하며 .....	13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상담소의 밤을 밝히는 야간간사들 .....	15

# 보관용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7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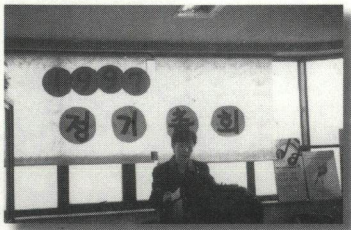
## 상담원 모꼬지

1월 10~11일, 1박2일로 경기도 양지 리조트에서 상담원 모꼬지가 있었다. 상근자 1명, 상담원 6명, 상담원 자녀 6명, 모두 13명이 참여했다. 상담원들이 준비해 온 다양한 재료로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함께 만들면서 친목을 나누고, 저녁에는 손경자 상담원의 현실요법강의와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밤새 진행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상담원으로서의 의식과 감수성을 고양시켰다.

## 열린터 퇴소자 집단상담

1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열린터 퇴소자 청소년 4명과 열린터 내담자 1명이 함께 집단상담을 하였다. 첫째날은 지킴이·나눔이가 리더가 된 친밀의 시간으로,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은 상담지원위 소속 정연옥 선생님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퇴소자들이 새로운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아직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피해후유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며, 힘을 주고받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 정기총회



97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5일 본 상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상담소 회원들이 함께 한 이번 총회에서는 96년 활동보고에 이어 96년 결산, 9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임원 및 대표이사·소장 선출이 있었다. 제4대 대표이사로는 박금자 이사장님이, 제4대 소장에는 최영애 소장님이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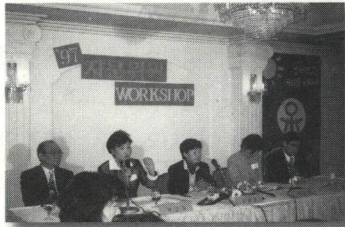
## 연구소 간담회

7월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개소를 앞두고 3월 12일에 준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은실·심은희·이원숙 교수님과 박원순 변호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연구소의 조직구성 및 인적 구성, 연구의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PC상담 간담회

3월 18일, 교대역 호화반점에서 PC상담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IP메뉴 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IP상담부에서는 도화 정보통신의 마이넷에 정보를 올리고 있으며, 마이넷과 유니텔을 게이트웨이(gateway) 방식으로 연결 중이다.

## 자문위원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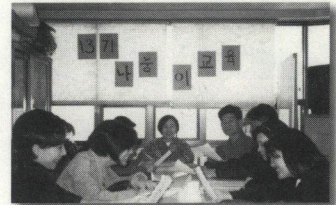


3월 31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자문위원 워크샵을 마련하였다. 그동안의 자문위원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망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상담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채규만 교수님, 조영환 변호사님, 산부인과 박금자 선생님, 정신과 소은희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문제점,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하셨다. 발표 후 전체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질의 응답과 제언 등으로 본 상담소와의 결속감을 다지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13기 나눔이 교육 및 모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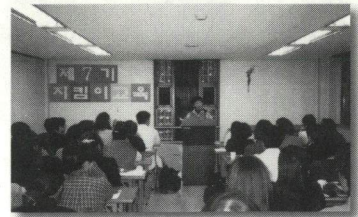
4월 1일부터 12일까지 5회에 걸쳐 13기 나눔이 교육이 있었다. 21명이 13기 나눔이 교육

을 받고 활동에 합류하여 현재 총 30명의 나눔이들이 활동 중이다. 나눔이 교육이 끝난 4월 12일에는 강촌으로 모꼬지를 떠났다. 6명의 적은 수만이 참여한 모꼬지였으나, 1박2일의 기간 동안 상담소와 나눔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 제7기 지킴이 교육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본 상담소의 야간상담원인 제7기 지킴이의 모집기간이었다. 83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현재 선발된 65명이 등록을 마치고 교육을 받고 있다. 4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7주에 걸쳐 20강좌를 듣고 수료할 하게 되는 야간상담원들은 6월 한 달 동안 실습교육을 받고, 7월부터 정식으로 야간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상근자 모꼬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상근자 모꼬지는 양평의 한화콘도에서 이루어졌다. 10인의 상근자가 조직의 재정비와 7월에 문을 열 연구소 준비를 앞두고 새로운 힘을 모으는 장이 되었다. 심신훈련을 위한 이번 모꼬지는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담소의 넘치는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를 보듬고, 자연과 더불어 더 나은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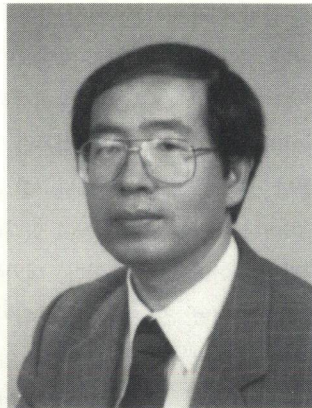
# 성적 야만사회와 자구행위

## 김보은 사건이 남긴 것

“김보은 양이 7살 때 그 어머니가 김영오와 재혼하였는데 김영오는 매우 포악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했으며, 늘 집안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식칼과 쥐약을 준비해 두었다. 김영오는 보은 양이 9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다. 특히 보은 양이 12살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성폭행했으며,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하고,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일 때에도 그랬으며 맥주병으로 질을 찌시는 등의 변태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도

알고 있었으나 김영오의 포악스러운 성격과 행동에 위협당해 가족들은 문제를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보은 양이 대학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김진관을 사귀게 되었고, 진관 군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진관 군은 한편으론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보은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이후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은 양은 김영오가 없어지면 행복하겠다고 말하여 김진관은 고통스러워하는 보은 양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김영오를 위협하기 위해 사건 당일 관사로 갔다. … 당당하게 나오는데 격분하여 살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이 이른바 1992년 1월의 김보은 양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의 개요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엄연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사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죽인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소름끼치는 일은 나이 어린 딸을 그토록 강간해 온 아버지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아무리 의붓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딸을 간음한다는 것은 패륜의 극치다. 그 딸도 딸이거니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 했을 것인지 감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보은 양과 어머니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응하지 않으면 구타를 계속하며, 이혼하자거나 도망을 가면, “아이들도 죽이고 가족 모두와 친정 식구도 죽이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 지역의 검찰청 간부이기도 한 김영오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가족들은 완전히 무력중에 빠져 그대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2년간이나 지속된 이 해괴망측한 일 속에서 살아온 가족들의 상황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라.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존속살인혐의로 법정에서 선 김보은·김진관의 변호인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것이다. ‘살아 있는 흉기’에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살해한 1992년 1월 17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보은 양은 목전에 급박한 법익의 침해를 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반항과 도망을 못 하게 폭행하며, 검찰의 위세

를 이용해 감시·통제하며 고발을 못 하게 했으므로, 살해 외에 달리 자신의 법익을 지킬 만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김보은 양이 부득이 살인을 택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 재판부는 일반 살인죄에 비하면 아주 낮은 형량을 선택하였다.

## 성폭력특별법은 만병통치약인가?

김보은 사건이 터진 후 만들어진 대책위원회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추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성폭력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김보은 사건이 이루어낸 성과 중의 하나였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생겨나 성폭력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 사범이 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들이 줄지어 생겨나 피해자들의 권익이 손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제한의 규정을 폐지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제,



보호감호제를 도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진전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성과로도 손꼽히게 되었다. “여성이 주장하면 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법안이기도 하다.

**‘짐승’을 죽였을 뿐**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드러났다. 김보은 사건에 못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다. 지난 96년 12월의 임순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는 친아버지였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검사하겠다”는 친아버지에 의해 등교길에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한 이후 1년 동안 성적 노리개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밤마다 흠뻑 두들겨 맞은 어머니는 안방에 갇혀 딸이 남편에게 겁탈당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어머니는 결국 이 ‘짐승’에 다름 아닌 남편의 청부살인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죄로 법정에 섰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녀의 항변이었다. 처제를 비롯하여 다치는 여성마다 성폭행을 자행한 피해자를 두고 그 동생마저도 “올케가 죽인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 짐승이었다. 법만 아니라면 불쌍한 올케 대신 내가 오빠를 죽이고 싶었다”고 하소연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금도 어느 가정에서 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진다. 왜 사전에,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고발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는가. 이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접 자구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아버지가 검찰청 간부이고 남편이 사채업자로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국가는 그 끔찍한 피해자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휴식처임을 확연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음이 바로 위 두 사건이 웅변해 주고 있다. 이쯤되면 성폭력특별법이 유명무실한 것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법은 마땅히 그 사회구성원을 손쉽게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호소하는 것이 마땅치 않게 느껴진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사후에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막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에 받는 고충은 차라리 신고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시는 얼굴조차 맞대면하고 싶지 않은 가해자와 대질 심문을 벌여야 하는 일,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 검찰, 법원에 수없이 불려다녀야 하는 일, 모독과 조롱에 다름 아닌 음란성 질문을 해대는 무지한 경찰관들. 이 모든 일은 감히 행정기관에 피해를 신고

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들이다. 왜 신고접수와 수사에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는가? 왜 폐쇄회로를 통해 반대심문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자유스러운 증언을 할 수 없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예산을 배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배려 없이는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성폭행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사실 성폭력 문제는 이미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고 말았다. 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연간 27만 명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낳고 있으며 세계 성폭력 희생자 발생순위 2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1990년 이후 매년 7천 건이 넘는 강간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도 그 비율이 늘고 있다니 참으로 야만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수치다. 여기에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의식과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성폭력 사건 발생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예를 들은 극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 성폭력은 이미 그 위험지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유치원생에 대한 추행을 한 유치원 원장이 있었는가 하면, 여중생들을 추행한 교장선생도 있었다.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이 땅 위에 없다. 림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 이발소, 터키탕, 리브호텔 등에서 율락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나이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까지 ‘영계’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고 있다. 포르노 잡지가 생겨나고, 기존 스포츠신문 자체도 율란문서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의 성적 도발을 야기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직장여성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데도 하소연할 방법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선뜻 소송을 내기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부녀자 인신매매, 강간, 어린이 성폭행, 아내구타, 근친강간 등이 실재없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변환경의 정화, 건전한 성교육의 강화 등도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도 자신의 부인과 딸은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폭행법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데도 이토록 조용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은가.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구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기꺼이 기부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하며 그 상근자들을 위문하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모두 성폭행 범죄의 방관자에 다름 아니다. 이 세상을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드는 일이 절로 되지 않는다. 자신이 아무런 비용부담과 노력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득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 야간상담의 현황과 밤을 지키는 사람들

노주희(본 상담소 위기센터 부장)

지난 96년 7월, 피해당한 지 48시간 이내의 위기상담(증거채취가 필요하고, 증거채취가 가능한 상담)만을 받아오던 야간상담이 모든 피해에 대하여 문을 열었다. 모든 상담을 24시간 받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다.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우리의 사회에 24시간 대기하며 피해시 대책을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홍보가 시작되자마자 상담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났고, 그 중 야간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 된다.

야간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상담의 많은 부분이 성상담이나 기타 상담(장난전화)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야간상담의 피해유형과 피해자 연령 등을 조사해 보았다. 주간상담과 비교해 보면 기타 상담이 많지만, 성폭력 상담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 9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담을 분석해 보았다.

### 1) 전체상담 중 야간상담의 비율

	야간상담	전체상담
1월	122(36.3)	336(100.0)
2월	92(32.5)	283(100.0)
3월	108(35.5)	304(100.0)
계	322(34.9)	923(100.0)

97년 야간상담이 전체상담의 35%로 3분의 1을 넘고 있다. 주간 상담에는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서신상담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야간에는 전화상담만을 하고 있다. 앞으로 PC 상담이 개설되어 통신상으로 상담을 받게 되면 주로 야간상담원(지킴이)들이 야간에 관리하게 되고 그럴 경우 야간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간 못지 않게 늘어날 것이다.

### 2) 야간상담 중 신규상담과 재상담

야간상담의 경우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원들도 한 달에 한 번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1회 상담으로 끝나거나 지속상담의 경우는 주간상담으로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에 재상담을 청해오는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

로 지속상담중인 상담원이 아니어도 도움을 청하고자 할 때나, 혹은 야간간사와 심리상담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담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규상담	재상담	총계(%)
1월	90(73.8)	32(26.2)	122(100.0)
2월	66(71.7)	26(28.3)	92(100.0)
3월	91(84.3)	17(15.7)	108(100.0)
회(%)	247(76.7)	75(23.3)	322(100.0)

### 3) 피해유형

전체 야간상담 322회 중 성폭력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상담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과 성추행(강간미수, 언어추행 포함), 남성피해 등으로 나뉜다.

피해 유형	성폭력(64%)			기타(36%)	
	강간	성추행(강간미수, 언어추행 포함)	남성피해	성, 순결	장난전화, 기타 폭력, 아내 구타 등
회(%)	116(36.0)	84(26.1)	6(1.9)	50(15.5)	66(20.5)

### 4) 피해자 연령

성폭력 피해 상담 총 206회 중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았다.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비율(%)	45.6	21.9	18.5	12.1	1.9

###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관계		비율(%)
아는 사람(71.2%)	친인척	17.2
	동네 사람	18.9
	데이트	7.2
	직장 내(상사, 동료)	8.1
	교사, 강사	3.6
	동급생, 선후배	5.4
	기타	10.8
모르는 사람		23.4
미상		5.4



신규상담의 강간과 성추행(강간미수, 언어추행 제외) 111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71.2%로 훨씬 많았으며, 이는 주간상담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는 동네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친인척, 직장 내의 상사나 동료, 데이트 상대,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순이었다.

6) 고소율

야간상담의 경우는 성폭력 상담 206회 중 고소율이 11.7%로 나타났다. 주간상담을 포함한 전체상담의 고소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야간상담의 경우 고소비율은 낮지만 법률적 정보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 야간상담원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재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본 상담소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주간 상담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주간상담의 고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7) 기타 상담의 내용

기타 상담 중 성문제, 순결문제 상담이 43%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아내구타, 장난전화, 기타 폭력에 관한 상담이었다. 성문제 상담은 전체 야간상담 중 15.5%를 차지하고 있다. 야간상담원의 경우

성폭력상담에 대한 교육만을 받고 있어서 성상담은 대부분 성관련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고, 아내구타는 아내구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기타의 기타 상담 경우는 성폭력을 가장한 상담이 추후 장난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이다.

상담유형	성, 순결	아내 구타	혼인 빙자 간음	장난전화	기타
회(%)	50(43.0)	4(3.4)	1(0.9)	2(1.7)	59(50.9)

야간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간상담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상담의 내용이나 형태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24시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자주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상담원으로서 질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 단순 정보제공자가 아니라 심리상담과 지속 상담까지 담당할 수 있는 상담원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많이 상담받고,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야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밤에는 상담이 얼마나 있을까?' 늘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소에 들어오고, 상담이 없는 날이면 고통 받는 사람이 적었기를 빌어보며 돌아간다.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함께 하기에 국내 최초의 24시간 성폭력 피해 상담이 가능했다.

## 지킴이 일을 하다 보면

강희선(67지킴이, 35세 주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찾다가 접하게 된 지킴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지킴이들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많이 놀랐다. 더구나 남성이 많다는 것은 새로움이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성(性)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당장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을 교육시켜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시민들의 재교육을 성폭력상담소가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매월 교육목표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월례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장을 제시하는 상담소와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든든한 디딤돌 형성을 위한 각자의 투자라고 여겨진다. 지킴이 일을 하며 밤을 샌다는 것은 보통의 생활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다음날 수업이나 직장근무나



여러 가지 스케줄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말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난 많은 야간상담원들은 다음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학교로, 직장으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에 와서 새우잠을 자고는 멍한 머리로 시간에 맞추어 해결해야 할 일들을 처리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지킴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봉사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이러한 고충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지킴이 초보자로서 상담횟수도 적고 부족한 점이 많아 전화가 울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사실이지만 내담자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한다. 상담일지를 읽다 보면 성폭력의 심각성과 다양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정신적 고통이 한 개인의 성장발달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이어 가족과 사회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누가 몸의 해방을 말하는가?

한설아(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만일 우리가 '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아마도 오늘날 후기산업 사회의 소비문화 속에서 '몸'은 바야흐로 그 유례가 없는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그려질 것이다. 갖가지 매체들에서 몸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몸에 대한 숭배'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한 문화현상으로서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몸이 정신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되어, 더 높은 이상과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 초월되고 망각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몸을 잘 알고, 그런만큼 잘 돌보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에만 우리의 몸을 맡기기에겐 뭔가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어떨까.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는가? 몸은 이제까지의 억압을 벗고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

이제 두 가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질문에 간단히 답해 보자. 위에서 나는 '몸'과 '우리'라는 뭉뚱그려진 말과 함께 작은 화두를 던졌다. 우선 '몸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했을 때의 그 몸은 구체적으로 '건강'과 '외모'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건강과 외모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정보 속에서 이 둘 사이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표현된다. 즉 건강하다는 것은 곧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젊음은 모든 아름다움의 조건이다. 건강함과 젊음과 아름다움이 이제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장려되며 서로가 서로의 논리를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장려에 전문가들과 대중매체가 가세한다. 대중매체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뿐이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장이 깨끗해야 이뻐진다'는 것과 비슷한 언설들을 끊임없이 유포시킨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움이나 건강함이나 젊음이나 그 목적에 상관없이 '몸'의 관리라는 지상명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상명제의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와 결과들이 존재한다.

첫째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중적인 찬양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많은 경우 하나의 '소비행위'가 됨으로써 후기산업사회의 이윤창출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소비행위가 반드시 그에 값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소비란 기본적으로 결핍감의 창출로부터 기인하는 구매욕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네 몸

은 지금 불완전하다. 건강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늙어가고 있다'라는 광고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로부터 두번째의 부정적 이면이 나오는 데, 그것은 나이든, 추함, 병든, 죽음과 같은 자연스런 생의 단계에 대한 부정과 배제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나이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과 배제와 차별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핍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과연 진정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로써 몸에 대한 숭배와 연결된 '우리'라는 추상적 집단이 하나의 동질집단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을 특히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몸이 지닌 '아름다움'의 화신으로서 끊임없이 추상화되고, 찬양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아온 '여성'이라는 집단이다. 이제 현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건강함과 외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사회에서 이상시되는 모습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젊고 아름다운 몸을 가져야만 한다. 이들에게 '건강함'은 그러한 외모를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몸을 갖기 위해 여성들은 건강을 쉽게 무시한다. 나이들어 보이고 늙어진 몸을 갖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이 갖고 있는 욕구를 외면하면서 젊기를 예사로 하면서 어지러워하고, 힘빠져 한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몸에 관심이 많지만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기준에 맞추는데 방해가 되는 몸의 '건강한 욕구'를 '저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누가 이들의 몸이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몸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누구의 몸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무엇을 지향하는 해방인가를 꼼꼼히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신중함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여성의 몸이 해방되었다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던져야 하고, 해방의 언설을 퍼뜨리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사회와 맹렬히 싸워야 할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해 어느 여성이든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 연구 4

# 성폭력 가해자 치료, 효과가 있는가?

박현이(본 상담소 상담원)

미국에 6개월 동안 방문할 기회를 가진 필자는 언어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위원회'를 찾았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성폭력범들은 일생 동안 평균 380건의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한다면 수백 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상담소를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물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치료하여 더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연구조차 거의 없는 상태이다.

미국에 6개월 동안 방문할 기회를 가진 필자는 언어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위원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집행위원장 데이비스(Davis)는 "체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성폭력범들은 일생 동안 평균 380건의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한다면 수백 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입 훈련, 일탈적인 성충동 조절, 사회 적응력 향상, 재범 예방 훈련 등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받은 가해자들에게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하기 위해 재범률, 비용,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가해자 치료가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가?

미국의 7개 연구센터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루어진 성폭력 가해자 치료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알렉산더(Alexander, 1993)는 최근에 가장 광범위한 연구성과를 이뤄냈다.

알렉산더에 의해 진행된 68개의 성폭력 가해자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중 재범률을 보면, 치료받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10.9%인 반면, 치료받지 않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18.5%이다. 의무적으로 치료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재범률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해자들보다 약간 더 낮다(10.5% vs. 12.4%). 그리고 최근 가해자 치료 기술의 향상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 이전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12.8%인 반면 1980년 이후에 치료에 참여한 가해자의 재범률은 7.4%이다. 게다가 행동치료와 집단치료만을 받은 가해자(13.4%)보다 행동·집단 치료와 함께 최근에 발전된 재범 예방 개입 프로그램을 병행한 가해자의 경우 재범률이 확연하게 낮았다(5.9%).

치료성과는 개인별 범죄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알렉산더와 다른 연구물들은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와 청소년시기에 성폭력을 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 맥그라스(McGrath, 1991)에 의하면 치료에 저항하는 경향을 보이는 성폭력범들은 여러 번의 수감경험이 있거나 성일탈적인 습성이 고착되어 있고 심각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는 모든 가해자 치료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해자들이 치료에 일률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가해자 치료는 비용 측면에서 시설수용보다 경제적인가?

성폭력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성폭력 가해자 치료의 기본 목표이긴 하지만 재정적인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산정한 재범자 한 명당 드는 평균비용은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총 138,828달러로 성범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막대하다. 반면 3년 동안 매주 단위로 진행되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비용은 한 명당 1,038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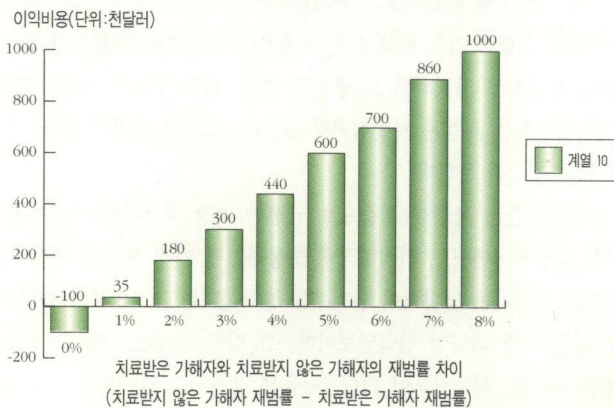
<표 1> 재범자 한 명당 드는 비용(단위: \$)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수사비	1,200	사회 서비스	5,000
재판비	4,010	병원/의료비	325
시설수용비(5년)	111,235	피해 보상액	825
의료비(3년)	12,813	신경정신과 치료비(1년)	2,250
가석방 사후 관리비(2년)	1,170		
계	130,428	계	8,400
총 비용 : 130,428 + 8,400 = 138,828			

치료받지 않은 현재와 과거의 수감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 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재수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은 가해자 치료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는 자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줄이는 데 생기는 이익까지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사용된 비용-이익 모델은 100명의 치료받은 가해자와 100명의 치료받지 않은 가해자의 재범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표와 같다. 치료 받은 가해자들 중에 재범률을 1%만 줄여도 비용 절감은 35,028달러가 된다. 또한 재범률이 8%나 그 이상 줄어 든다면 1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가해자 치료는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치료를 통한 이익비용 측정  
100명의 치료받은 가해자와 100명의 치료받지 않은 가해자



### 3. 가해자 치료는 피해자의 피해극복을 돕는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힘들어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그 범죄에 대한 질문들(“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것이 나의 잘못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할 건가?”)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묻고 싶어하기도 한다. 어떤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편지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해자와 아무런 접촉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극복을 도울 수 있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는 효과가 있다. 비록 모든 가해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모든 치료가 일률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우리사회에도 중요한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성폭력 가해자 치료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에서 성인사범으로까지 확대된 지금, 가해자의 나이와 범죄의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우리사회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움 받은 자료

- Alexander, M.A. "Sex offender treatment: A response to the Furby et al., quasi-meta analysis" A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12th Annual Conference, November, 1993. Boston, MA.
- McGrath, R.J.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and disposition planning: A review of empirical and clinical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5(1991): 328~350
- Vermont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Aggressors. Un published Recidivism Data(1992). Waterbury, VT.



## 부조리한, 너무나 부조리한

김병준(지킴이, 성문화 읽기 회원)

스포츠신문을 보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어깨너머로 바라보는 신문에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가벼운 내용들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져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면에서 이를 대면한다면 앞에 놓인 것이 단순한 신문이 아닌 우리를 포위한 모순의 적나라한 얼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신문의 또 다른 이름은 '좌판'이다. 이곳에서 소비와 문화는 동일시된다. 상품은 읽고 이해되는 형식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이미지로 가공되어 다시 팔려지도록 치장된다. 읽고 난 후에는 미련 없이 버려지고, 다음날 새로운 상품이 되어 문화의 이름으로 다시 팔려진다. 이름이 비록 스포츠신문이지만 이를 다루는 지면은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남성적 영웅을 상품 삼아 팔고 있을 뿐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선을 신문의 1면 상단 오른쪽으로 보내버린 '보통' 사람이건, 자본주의에 의해 조작된 상품들이 펼쳐진 좌판임을 간파한 사람이건 신문은 곧 일상이 된다. 신문은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끊임없이 유회하며, 그러한 굴레는 왜곡된 성과 여성의 몸을 팔아 지탱된다.

스포츠신문을 보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이제 펼쳐놓은 좌판에서 반라의 사진은 이미 무감각하게 여겨진다. 연애가 소식에는 어느 배우가 옷을 벗는다는지, 섹스신이 어떻다는지의 내용이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고, 연기자로서 최고의 덕목이 과감하게 옷을 벗는 것으로 묘사된다. 신인배우의 경우엔 나이와 함께 반드시 신체 사이즈가 등장하고 최진실 같은 주연배우라 하더라도 그들이 여성인 한 그들의 나신이 상품으로 팔려지는 것에 무력하다. 만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여성들은 그들의 성을 주인공인 남성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옷을 벗는다.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여성흡연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여대생 명예기자의 이름을 빌어 쓰여졌다 해서 놀랄 것은 없다. 기사내용을 결정한 것은 데스크이고, 정도가 심한 기사, 성차별이 심한 기사는 대부분 익명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기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나마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상담란에는 정신과 의사가 여성의 섹스중독증을 걱정하고, 피부과 의사는 남성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비법을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선전한다. 문화면에 등장하는 도판은 모두가 누드이고, 포르노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양 소개된다. '외설연극'이 걱정된다며 이들을 선전하는 신문은 분명 이들의 동료다. 서로 베끼고 모방하면

서, 왜곡된 이미지들을 재생산해내고 상대 상품의 구매를 부추기는 전략으로 서로를 감싸안는다. 처녀를 모범생으로

처녀가 아닌 여자를 탈선학생으로 비유한 유머란에서 그나마 쓴웃음을 지어도 여인숙을 여자가 인간이 되기 위해 들어가야 할 장소로 묘사한 대목에선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피하는 대책이란 '지하철 1호선을 타지 않는 것'으로 선전되고, 사건보도의 주요 화제인 성폭력 기사에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아무렇지 않게 적시된다.

이들은 여성해방을 한 글자 줄여 성해방으로 선전하고, 여성학을 여성을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으로 찬양한다. 이들은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사실은 강간당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변한다. 스포츠신문을 보는 일은 진실로 괴로운 일이다.

기사를 생각해서도 그 배후의 힘을 생각해서도 그렇다. 이 모든 기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쓰여지고 구성되었다. 그들의 욕심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중독이다. 그것이 연중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종합 일간지보다 33퍼센트나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들은 이를 위해 성을 상품 삼아 판매하는 그물망을 조직하고, 언론으로 자처하며 그 중심에 선다. 많은 정보가 유통되지만 이를 섭취하는 과정은 자발적이지 않으며, 그것은 조작된 허구이기 에 없는 것보다 못하다.

스포츠신문은 문화를 상품으로 규정한 가장 자본적인 매체이며,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의식조작에 능통하기에 가장 위험한 매체다. 그들의 판매자는 영향력이 안기부를 능가한다는 조선일보와 역시 5대 일간지 중 하나인 한국일보이며, 그 다른 편에는 망할 리 없는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의 결탁으로, 그것도 안되면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모순을 일상으로 만든다. 국민들이 성과 스포츠에 탐닉하길 원하는 정치는 언론사에 당근을 준다는 이유때문이라도 이들의 존재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의 침범인 기업들은 그와 같은 매체가 하나라도 더 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스포츠신문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철저한 산물이며, 체제의 뒷면과 같다. 이를 통해 성인들은 성에 관한 '지식'을 얻고, 아이들은 가부장제를 이끌 편견을 일상 속에서 습득한다. 스포츠신문을 보는 일은 인류의 반을 억압해 온 모순과 부조리를 대면하는 일이며, 그것이 일상이기 에 저항하기 어려운 힘이다. 바로 저항해야 할 대상이다.



# 사회성지수와 살아남기

한림화(소설가)

흔히들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 정말로 혼자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기에 생명 있는 것치고 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란 없다고들 하잖는가.

까닭에 한 인간의 생활사는 더불어 잘사느냐 못사느냐가 화두선 역할을 한다. 더구나 사회생활이 복잡다단해질수록 생존능력이 오직 나와 남과의

관계여하에서 저울질 되어지고 사회성지수가 매겨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흐름이 예전에 비해 집단화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개인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즈음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생활의 강도는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데서 한 치 한 톨도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평이기는 하지만 주로 남성사회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성이 덜하고 개인적이라고들 한다.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지적도 아닌 것이, 여성은 현재와 같은 사회생활을 한 역사가 길지 않다. 때문에 누대를 두고 사회성의 틀을 정형화하여 그에 알맞게 이미 집단화되도록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남성세계의 관점에서 여성세계를 본다면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게 당연하다.

내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성인 남성과 맞대면하여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들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결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시점임에도 결정은 잠시 유보해 두고 도리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처신하는 예가 허다하다. 결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가면서, 회피할 수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 이르러 언제라도 꺼내어 쓸 무기를 한 점쯤은 숨겨두어야 무엇을 해도 한다.

요즘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TV의 토론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접 체험을 하곤 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성 출연자는 대부분의 경우 직선적인 표현을 주로 하고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개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개인적인 체험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고 결론을 내기 위해 주변부를 별로 맴돌지 않는 데 반해, 남성 출연자들은 자신의 주의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사회현상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예외 상황을 설정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와중에 동조자를 포섭하는가 하면 동지를 규합한다.

개인끼리의 대화에서도 남성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을 때 개인정보를 흘리고 여성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농일수록 일급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도 서슴없이 털어놔버리기 일쑤다.

저 여자는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도 참 잘산다 싶어 유심히 살펴보면 대개가 다 남성처럼 처신하는 이들이며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최선책으로 남성세계에서 보편화된 전략을 마치 남성인 듯이 받아들이는 이들 중에 성공한 이들에 해당되는 이들이 그들일 수 있다.

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즈음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 부정적·공정적인 판단이나 시각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가져본 적은 없다. 다만 의구심은 있었다. 여성사회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아울러 남성사회와 여성사회를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현실직시론을 역설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남성들간에는 가느다란 줄일 망정 잇대어 있으면 냉큼 거머쥐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생존경쟁할 역량을 알아서들 키워주고 키워받는다. 주고받는 관계는 물론 획일적이지 않아 필요할시에는 상호작용을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들도 그러한가?

남성들 조직이 동창회니 동호인 모임이니 하여 평상시에는 개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적인 뽀를 벗어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사회성을 띠면서 힘을 과시하곤 할 때, 반드시 남성사회는 여성사회를 예측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대책 운운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가?

남성사회와 여성사회의 구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독자적인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 분파적인가?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이 그리 사회적이지 못함을 발견했을 때, 나는 무던히도 내 사회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별로 나아진 게 없음을 알게 된 요즘은 나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흔쾌하게 사회성을 띠고 살 날들을 꿈꾼다.



# 새 0 명력 있는 자원활동을 위하여

정진욱(본 상담소 PC상담부장, 前 나눔이)

자원활동(voluntarism)은 자발, 자주, 자유의지를 뜻하는 voluntas에서 나온 말로서 “개인 자신이 택한 자원활동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공익의 요소를 증진/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5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평균 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기 한 입 먹고 살기도 바빴던 시절을 지나 이제서야 조금씩 다른 것들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까. 어쨌거나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점수에 반영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들이 일반인들에게 더 빨리 퍼지게 된 듯 하다.

그러한 상황과 비교할 때, 상담소는 개소 초기부터 자원활동가를 주축으로 상담소의 여러 활동들을 이끌어 왔고, 현재 자원활동가 가장 원활한 단체로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 현재 상담소에는 상담원 15명, 지킴이 65명, 나눔이 30명 총 110명의 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121명의 각 전문분야별 자문위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23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현재 활동하는 자원활동가의 인원수만 보더라도 본 상담소가 자원활동가들의 힘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작년에 자원활동가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 그대로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부터 여성운동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실로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활동은 시작할 때의 그 불꽃 같은 열정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그 지속성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자원활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성격에서 오는 문제일 수 있는데, 즉 ‘자원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무보수이며, 하면 하고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되기가 쉽다는 점이다. 또, ‘성폭력 없는 밝은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기’라는 높은 지향점에 비해, 자원활동가에게 비중 있는 일이 맡겨지기가 힘든 점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그 이상향,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담원의 경우 상담이 폭주할 때나 상담내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나눔이는 단순노동이 반복되는 일의 성격상 성취감이나 발전적인 모습들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어려움, 지킴이의 경우는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상담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밤샘근무 조건의 열악함에서 오는 어려움 등)과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때 자원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봉사만이 요구되는 곳보다는 상담소와 같은 운동단체의 자원활동가에게서 더 많이 고민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원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열정이지만 이러한 활동상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활동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자원활동은 활동가 개인의 열정과 더불어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자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활동가 개인의 열정만을 바탕으로 한 짝사랑이 아니라 그가 단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단체의 여러 활동과 목표에 담겨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활동가들이 가진 내면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원활동은 개인과 단체의 욕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게 됨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살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에 굳이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활동’이라는 단어를 고집하여 쓰고자 하는 이유는 상담소에서 자원활동가들의 일이 단순히 봉사의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여성단체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중심적 사회의 여성 피해를 돕는 단체라는 점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에 더하여 여성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단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자신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제대로 된 자원활동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소는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의 ‘평등하고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대한 열정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연구소 개소를 준비하며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개소 —

김지혜(조사연구 2부장)

## 성폭력 상담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해지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고 성폭력을 근절시켜 남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의 장으로서,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추구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에 설립되었다. 최초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문을 연 상담소는 개소 이후 1997년 4월 현재까지 1만 4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토요법률상담, 열립터, 위기센터, 심리지원위원회, 법정지원팀 등의 폭넓은 활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되지 않았던 성폭력의 문제, 성의 문제를 공론화시켜 왔으며,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이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지원운동(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우 조교 사건, 황수연 교장 성추행 사건)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본 상담소는 명실상부한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질적 도약을 시도하고자 한다.

상담소는 어린이 성폭력, 친족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의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폭력특별법안의 제정 및 개정방안 등에 관한 자료집 등의 발간을 해왔고, 이러한 자료들과 지칭서는 성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1차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여러 해를 거쳐 상담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상담활동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작업을 진행시켜야만 하는 영역은 증가했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지되는 우리사회에서의 친족 성폭력에 대한 대처의 문제, 그 가족의 특수성과 치유, 자신이 가해자인 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우리사회의 성문화,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갖는 후유증과 극복방법, 피해자들의 자존감과 정체체성의 확보, 올바른 성교육 정책의 필요 등 수많은 많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살려야만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했다.

##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장이 되도록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는 단지 성폭력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성문화, 여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활동을 통한 피해자들의 후속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방, 교육, 연구 등의 작업이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필요성은 활동현장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현장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적 자원과 바쁘게 돌아가는 당면 문제들의 해결들로 인해 이를 뒷전으로 미루어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 왔다.

또한 지난 6년간의 상담소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과 여성학 간의 간격은 너무도 컸다. 여성운동은 그 나름대로 당면 문제들의 해결에 바빴고, 그 속에서 이론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여성학 또한 새로운 학문의 흐름을 쫓아가야만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여성운동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적인 작업들을 하기에는 무리였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은 화려한 이상에 불과하고, 더이상 여성운동단체에도 여성학에도 그 책임을 묻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작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조사연구부를 활성화시켜 왔으며, 이제 상담소라는 여성운동의 단체 내에 연구소를 개설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편으로는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의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론과 실천을 통합시켜 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운동이자 연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상담소가 성폭력 종합센터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연구소는 당분간 본 상담소 부설로 운영되고, 교육원 등의 설립 이후 종합센터의 모습을 갖추면서 독자적인 기관으로 독립하게 될 것이다. 각각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성폭력 없는 세상,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종합센터의 각 기관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연구소 개소의 절실함과 열정만으로 어려운 시작을 하고자**

여성운동단체 내의 연구소 설립은 기존의 연구기관과는 연구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학교나 전문 연구기관이 보다 이론적이고, 추상화된 연구작업을 한다면, 운동단체 내의 연구물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나 가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보다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제 막 문을 여는 연구소로서는 이런 작업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상담소의 문을 열고 키워온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한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시킴으로 보다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치중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여성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각 학문 영역에서의 접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 영역에서 모여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연구, 성폭력 및 성의 정책에 관련된 연구, 유형별의 성폭력 특성과 치유방안 등에 관한 연구, 성교육 관련연구 등 크고 작은 실제적인 연구들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소 내에는 연구분과와 교육분과를 두어, 연구물들을 진행시키고, 실제로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부모교육 등은 교육분과에서 교육을 진행시켜서 실행을 해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원 설립 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 예방교육 등) 계획 및 실시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소장이나 책임 연구원, 연구원들 뿐 아니라 성폭력

문제, 여성의 문제, 우리사회의 성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연구위원, 회원 등의 자격과 역할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소 개소 원년인 1997년의 사업으로 계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 성교육 모델 개발(중학생, 단기, 지자체 중심), 건강한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성교육 캠프 등이 실시될 것이다. 또한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로서 국내외 성폭력 연구의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 외에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성폭력 일반(고등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 보도의 양상과 문제점, 성폭력 상담과 상담담의 유형·내용·방향, 성윤리의 변화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연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집

단상담 매뉴얼, 성폭력 피해자 컴퓨터 모델-운영방안, 거주자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가해범에 대한 양형과 양상, 성폭력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연구, 청소년, 성인 등), 성폭력 유형별 연구(친족 성폭력 가정의 특성과 치유방안, 통신을 이용한 성폭력의 유형과 실태, 장애인 성폭력 특성, 통신이용 상담의 성폭력 유형과 특성, 대학교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대학교 내 성폭력 처리의 동향과 문제점), 성교육 관련연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장단기, 성별, 연령별, 성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 피해자 부모를 위한 교육 캠프) 등 크고 작은 실제적인 연구들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과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절실한 필요성과 열정,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종합센터로의 힘찬 발돋움이 시작 될 것이다.

**연구소 개소 준비 진행 사항**

- 1, 2월** - 상담소 내부에서 조직에 대한 구성논의가 있었습니다.
  - 연구소들의 운영에 관한 정보수집과 가능성의 타진을 위해서 대학 내의 연구소와 시민단체들 중에서 연구소를 개소하는 곳을 방문, 관련 자료 수집.
  -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참여연대의 부설 연구소인 참여사회연구소의 방문에서 박원순 사무처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 3월** - 개소 준비 간담회(3월 12일)가 열렸습니다.
  -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이원숙(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장윤경(본 상담소 사무국장), 이경미(본 상담소 조사연구 1부), 김지혜(본 상담소 조사연구 2부)가 참석.
  - 이 간담회에서는 운동단체에서 연구소를 열면서의 어려움이나 주의점, 연구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연구소 조직안 완성. 간담회를 거친 후 수많은 내부 회의, 이사회를 거쳐 연구소의 조직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 4월** - 연구소 소장과 책임연구원에 대한 개별적인 섭외.
  - 현재 소장에는 이원숙 교수님(강남대 사회복지학과)이 섭외되었습니다.
  - 개소준비위 1차 모임(4월 17일). 이원숙, 최영애, 김지혜, 이경미 참석.
  -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에 대한 주제선정과 개소식 행사 준비에 대한 논의. 개소 기념 세미나는 국내외의 성폭력 연구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 5월** - 책임연구원에 강선미(이대 여성학과 박사 과정), 장화정(숙대 아동복지학과 박사 과정)이 섭외되었습니다.
  - 연구소 개소식과 기념 세미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7월 1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있습니다.



## 상담소의 밤을 밝히는 야간간사들

한밤에도 상담소를 꼭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킴이들과 함께 상담소를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들, 바로 야간간사들이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 어려운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그 업무상황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잘 알려질 기회가 적었던 야간간사들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다.

야간간사의 업무는 야간상담 관리와 지킴이들을 잘 조직해내는 것이라고 세 간사는 입을 모은다. 그리고 상담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킴이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 세 명의 간사가 주 2일 체제로 근무하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지킴이들과 10분 정도의 사전회의를 갖게 된다. 1시부터 7시까지는 정해진 휴식시간이라서 잠을 잘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킴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잠자는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근무를 끝내고 지킴이와 평가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이나 등교를 해야 하는 지킴이들의 사정상 상담을 받을 때



마다 상담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전 9시 30분, 이제 막 출근한 위기센터 상근자와 간단히 업무상황을 얘기한 후 높이 떠오른 해를 보며 퇴근(?)한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간사들이 서로 근무시간이 달라 자주 만나기 어려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힘든 일이라고 한다. 간사들 사이, 그리고 간사와 위기센터 상근자 사이의 잦은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지킴이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뿌듯하다고 한다. 지킴이들은 상담소를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끈이므로 이들의 운동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숨은 욕심을 보이는 간사들은, 이들을 조금씩 의식화하여 자원활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킴이들의 잠재능력을 잠재우지 않고 깨워낼 수 있는 상담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간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담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 김보연, 김선우 기자/정리: 김선우 기자

### 열린터 후원 회원을 기다립니다

열린터는 가해자와의 거처분리나 집중상담이 요구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열린터에 거주하는 내담자들은 법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진단서 발급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상담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함께 할 열린터 후원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 소식지인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일정액을 약정하시면(월 5천 원 이상), 본 상담소에서 지로 용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문의: 박미숙 부장/ 576-7128)

### ‘홀짝 크는 여름 캠프’에 참여합니다!

성교육을 중요한 실천으로 생각하는 본 상담소에서 이번 여름에 드디어 청소년 성교육 캠프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이 알고자 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2박3일 동안 신나게 놀면서 건전한 성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추천해 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 장소 : 서울이면서 산과 계곡이 있는 불광동 한국기독교수양관
- 일시 : 7월 28일(월)~7월 30일(수)
- 자격 : 경기도 지역 중학교 여남 2~3학년 누구나(60명)
- 참가비 : 4만 원
- 참가신청 : 6월 30일까지

(문의 및 참가신청 : 이경미 부장/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떤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4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 5월 PC상담 개설
- 5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6주년 기념 기금 마련 음악회
- 6월 제7기 지킴이 실습교육
- 6월 경찰간담회
- 6월 정신대 수요시위
- 6월 27일 전체 야유회
- 7월 1일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 국내외 성폭력 연구 동향
- 7월 28일~29일 훌쩍 크는 여름 캠프 (청소년 성교육 캠프)

##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어떤 비디오가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구입문의 : 이운상 부장 / 576-7128

## 우리 상담소의 심벌 ♀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벌인 ♀는 여성을 나타내는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서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529-4271~2, 위기상담 : 573-1888

### 이사

강학중 · 문해란 · 민병진 · 박금자 · 오세민 · 윤장순 · 이종걸 · 조영환 · 최영애

### 감사

회계사/배재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상담** .....  
 인간재활학/김중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심리상담가/장화정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

**법률** .....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장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몽·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운성·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남소자·문영규·민용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여·이옥주·임용택·장정원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

**PC상담** .....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연구** .....  
 사회학/김중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장대현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 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숙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사회사업학/이원숙

**홍보 출판** .....  
 시사민평가/최정현 신문방송학/김은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카피라이터/홍성애

**재정** .....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재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장순

**교육** .....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대표이사 · 박금자  
 소 장 · 최영애